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0 "우리도 뛰다"



KT텔레캅 호남본부 직원들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KT텔레캅 호남본부 제공〉

24시간 대기·신속한 출동
고객·문화재 '안전 지킴이'

KT텔레캅 호남본부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 만들기 KT텔레캅이 책임지겠습니다."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첫 출전하는 KT텔레캅 호남본부 직원 22명은 "고객의 안전한 신속한 출동에 달려 있다"며 보안 전문기업으로서의 자존심 선언을 했다.

KT텔레캅은 지난 2006년 11월 KT그룹의 열두번째 계열사로 공식 출범했다. 20만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보안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KT텔레캅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지킴이'와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문화재지킴이'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광철(46) 호남본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광주시민들과 함께 뛰면서 시민들 곁에 항상 'KT텔레캅 보안관'들이 있음을 인식시켜겠다"고 대회 참가 포부를 밝혔다.

대회 첫 출전...전직원 22명 5km 도전

이번 3·1절 전국마라톤에는 22명 모두 5km에 도전한다. 직원들은 보안업무 특성상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 대회를 준비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운동을 즐기기 때문에 기초체력만큼은 탄탄하다. 축구동호회를 꾸려 매주 토요일 호남대 운동장에서 친목을 다지고 야구동호회 활동도 한다.

이번 대회가 마라톤 첫 출전인 만큼 목표는 '단합과 모두의 완주다'.

참가자를 총괄할 임직원 김정순(39) 지원팀 부장은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반드시 완주해 그 자신감으로 결혼에 도전하겠다"며 버리고 있다.

광주지사 설계석(30) 대리는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파이터'다. 입사 4년차인 설 대리는 국제 빅박스 신인왕전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경력의 소유자다. 근무시간 외에는 특공무술 사범

"친목·단합 위해 전원 완주할 터"

이면서 이종격투기 선수로 뛰고 있다. 설 대리에겐 아픈 기억이 있다. 싸움엔 자신이 있는 그가 50대 취객에게 얻어맞은 사건이다. "고객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휘두를 순 없잖아요. 일단 제압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사법권이 없는 직원들의 고충이다.

직원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정진호(30) 지원팀 과장은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을 자주 느꼈다"며 "걷고 뛰다 보니 체중도 빠지고 허리 통증도 사라졌다"며 마라톤 애찬론을 폈다.

이길진(47) 광주지사장은 "달리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심신도 건강해져 차분하고 신속해야 할 보안 업무엔 제격이다"며 "영상 보안 출동 서비스인 '텔레캅-아이'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고객의 행복한 삶을 가꾸는 시큐리티 전문회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고 김재형 '올림픽 티켓' 보인다

양궁국가대표 선발 첫날 1,019점 좌 선두

김재형(18·순천고·사진)이 양궁 남녀 국가대표 16명 중 베이징올림픽에 나갈 6명을 뽑는 국가대표 평가전 첫날 선두를 기록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11일 호주 멜버른 양궁클럽에서 열린 국가대표 평가전 첫날 고교 2년생인 김재형은 1천 19점을 명중시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1위로 치고 나갔다. 이어 이창환(26·두산중공업)과 장용호(32·에천군청), 박경모(33인천체육구경)가 뒤를 바짝 쫓았다.

여자부에서는 박성현(25·전북도청)이 선두로 나섰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2관왕 박성현은 이날 여자 70m에서 1천21점(1천80점 만점)을 좌 1위에 올랐다. 70m 거리에서 36발씩 3회를 쏘는 대결에서 박성현은 1회 343점(360점 만점), 2회 340점, 3회 338점으로 3차례 모두 선두를 놓치지 않으며 올림픽 2연패 꿈을 키웠다. 김연아(27·대구서구청)와 주현정(26·현



대모비스)이 2, 3위를 달린 가운데 다울달 대전체고 입학을 앞둔 '소년기사' 곽예지(16)가 뒤를 이었다. 양궁 대표팀은 11~15일 호주에서 열리는 1차 평가전과 내달 15~19일 2차 평가전, 내달 27~31일 3차 평가전 접수를 더해 남녀 16명 가운데 우선 남녀 8명을 추린 뒤 6월 말 올림픽 태극궁사 6명을 뽑을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피겨여왕' 김연아 부상 치료차 귀국

고관절 통증으로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 출전을 포기한 '피겨여왕'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대표이사 이희진)는 11일 "부상 부위에 대한 정밀진단과 신속한 재활치료를 위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며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치료에 한계가 있어 국내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토를 떠나 시카고를 경유해 이날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연아

는 곧장 병원으로 이동, 통증이 있는 천장관절과 왼쪽 고관절 부위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치료와 재활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연아는 지난달 31일부터 심한 고관절 통증으로 정상훈련을 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토론토 현지 병원과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국내에서 치료받기로 했다는 게 IB스포츠의 설명이다. 한 주 국내에서 머물게 된 김연아는 치료를 받은 뒤 18일께 캐나다로 돌아갈 내달 예정된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장미란 3년 연속 세계랭킹 1위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사진)이 국제역도연맹(IWF) 세계랭킹에서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11일 IWF 공식 홈페이지(www.iwf.net)에 따르면 장미란은 2007년 여자 최중량급(+75kg) 순위에서 함께 319kg으로 중국의 무상샹(합계 319kg)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장미란은 이로써 2005년부터 3년 연속 세계 정상 자리를 지켜냈다. 장미란은 지난 해 9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2007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인상 138kg, 용상 181kg 등 합계 319kg을 들어 올려 우승, 이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무상샹도 당시 합계 319kg을 기록했으나 몸무게 차이로 장미란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또 여자 53kg급에서는 한국 여자 역도의 기대주 윤진희(22·한국체대)가 합계 211kg

으로 5위를 차지했고 58kg급에서는 문유라(18·경기체고)가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남자부 순위에서는 지난 해 세계선수권 77kg급 용상에서 나란히 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광훈(26·상무)과 사제혁(23·강원도청)이 각각 5위, 6위에 랭크됐다. 12일(화) ▲통일매 스키(14:10·KBS1) ▲V 리그(대한항공·상무)(18:30·KB-SNSPORTS) ▲프로농구(삼성·LG)(SBS스포츠·X-ports:18:50)

한국 남자핸드볼 대표팀
표 선수권대회 출전키로

남자핸드볼대표팀이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의 극심한 편파판정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3회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17~25일)에 예정대로 출전한다. 정형균 대한핸드볼협회 상임부회장은 11일 "AHF가 한국과 일본의 약점을 잡으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발미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편파판정이 범히 예상되지만 출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세계대회 예선이 무효가 됐지만 핸드볼협회회는 이미 3천 달러를 내고 출전 신청을 한 데다 조 추첨까지 끝난 상황에서 AHF에 징계의 발미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 아래 예정대로 출전을 하기로 했다. 대회는 풀리드로 각 조 1, 2위를 가린 뒤 4팀이 준결승부터 토너먼트를 벌인다.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dong, Geumbo, Sangwul, Daeji, A+ Eiplus, and Hanil. Each ad lists property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